



삼성화재 신치용(앞 오른쪽) 단장에게 농구선수 출신인 부인 전미애(가운데) 씨, 농구선수 출신 딸 신혜인, 배구선수 사위 박철우(앞 왼쪽)는 영원한 우군이자 지지자다.

용인 | 김종원 기자 won@donga.com

## “아빠, 손녀한테 하는 절반만 나한테 해줘 봐요”

취재 김영준 기자 gatzby@donga.com  
편집 고창일 기자 ico@donga.com

삼성화재 신치용(62) 단장은 어렵다. 무표정 속에 무엇을 의도하는지,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다. 이런 신 단장이 가족 앞에 선 한없이 약하다. 가족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의 첫 반응부터가 평소의 신 단장과 달랐다. “집사람한테 물어보고요.”

그렇게 성사된 인터뷰. 9월 25일 오전, 용인 삼성트레이닝센터(STC)에서 신 단장과 부인 전미애 씨, 딸 신혜인, 사위 박철우를 만났다. 그리고 보니 4명 모두가 체육인이다.

●단장과 선수, 장인과 사위, 그리고 가족들 -남편과 사위의 배구를 볼 때 기분이 다른 니까?

전미애 씨(이하 전) : “남편 감독할 때는 안 떨렸는데, 사위는 볼 때마다 긴장돼요. 남편은 감독으로서 믿으니까(웃음). 사위라서 그런지 늘 불안하고, 다칠까봐 조마조마해요. 신 단장이 선수 시절 세터였는

데 그땐 떨리지 않았어요. 배구를 몰랐으니까요.”

-배구인으로서 신 단장은 절제가 몸에 밴 듯합니다.

전 : “가정에서도 절제를 너무 해(웃음). 배구 얘기 안 했어요. 요즘은 좀 하는데 사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”

신치용(이하 신) : “감독 할 때, 팀 얘기 일체 안 했어요. 철우도 내가 싫어하는 거 아니까 집에선 배구 얘기 한마디 안 해요. 감독 부인이나 식구가 나서면 나중에 문제돼요. 내가 감독할 때 우리 집에 와본 선수나 스태프가 없어요.”

전 : “언젠가 축승회를 가족 모임으로 했어요.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‘누구 가족이세요?’라고 물어보더라고요(웃음).”

신혜인(이하 혜인) : “이번 KOVO컵 때 처음으로 아빠 옆에서 배구를 봤어요. 딸 소울이 덕분이죠. 그 전에는 사무실, 훈련장 한번 들어가 본 적 없어요. 한여름에 훈련장에 갔는데 아빠가 저는 땀병인데 밖에 있으라 하고, 손녀만 안고 들어갔어요(웃음).”

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...바라지 마라 혜인이랑 사위한텐 더 바랄 게 없죠 난 땀병에 두고 손녀만 꼭 안고 가고 사위는 장인어른 만수무강만 빕니다

신 : “나는 철저하게 감독으로서 생각해야 돼요. 선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리더 아니에요. 집사람한테 시시콜콜 팀 얘기 하다 보면 내 판단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.”

-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신 단장이 박철우와의 FA 협상은 사무국장을 내세울 수도 있었는데 직접 했습니다.

신 : “장인, 사위 관계이지만 FA는 단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. 안 불편했어요. 사무국에 기준 안은 내라고 했고, 그대로 했어요. FA, 연봉협상 할 때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.”

-단장과 협상하려니 저항하기 힘들었겠습니까.

혜인 : “제가 하고 싶었어요(웃음).”

박철우(이하 철우) : “다른 팀에서 뭘 상황도 아니고, 재계약 자체가 고마웠어요. 생각보다 평가도 좋았고요.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. 딱 한번 부르셨어요. 세 번째 FA예요. 충분히 누릴 만큼 누렸어요. 후배들도 FA 제도가 좋아지니 덕 봤으면 해요.”

●박철우 향한 모진 꾸지람, 가족들은 이해해

-‘사위 박철우는 나무랄 데 없는데 선수 박철우는 갈 길이 멀다’고 하셨다죠?

신 : “그렇죠. 처음에 엄청 깨졌지.”  
-단장이 감독인 시절, 작전타임 때 ‘철우야, 너한테 실망이다’라고 일갈했었죠. 조마조마했겠습니까.

전 : “인터넷에 아직도 떠돌아다녀(웃음). 조마조마하지 않았어요. ‘저러러니, 저러러니, 저러러니.’ 남편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도 어느 한 편엔 사위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위를 더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. 시청자는 ‘너무한다, 잔인하다’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.”

